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에 참고해야 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시사점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에 참고해야 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시사점

개별 교과목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지식은 전통적으로 구성된 체계와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대부분의 기성 세대는 학교 교육에서 다루는 각 교과목의 내용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느정도 알고 있다. 이는 그 내용 지식들이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렇게 교과목별 내용 요소와 체계가 큰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나름의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내용 요소의 지나친 재편은 수업 내용 구성에 여러모로 부담이 된다. 같은 내용 요소를 오랫동안 다루면서 쌓아온 나름의 노하우가 채 빛을 발하기 전에 교육과정 내용요소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구성되면 그동안의 교수학습 경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그렇다. 교육과정이 학교별로 계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용 요소가 급격히 변하게 되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과목별 내용 요소와 체계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대폭 교체되거나 재편되어서는 곤란하다. 내용 요소의 안정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내용 요소를 절대 불변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교과목이 다루는 내용 지식은 학문적, 시대적 변화에 적응해 끊임없이 부분적이라도 재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적, 학문적 컨텍스트가 반영된 것이 교육과정이므로 내용 요소와 체계가 일정 부분이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특히 사회과 교육과정은 바로 그러한 컨텍스트를 교과와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 고심해야 하는 특징을 다른 교과에 비해 더 많이 갖고 있다 할 것이다.

교과목별 내용 요소를 재구성할 때, 우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가장 먼저 주목하곤 한다. 국가가 미래의 사회 주도 집단인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가르칠 것인지 명시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야말로 사회 교과가 추구하는 구성주의적 교과 개정 방향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과정을 논하는 사람이라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돌아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현재 교육 현장에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예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실제적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핵심역량 6가지 및 교과별 역량을 제시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는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의 교과 역량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내용을 구성하게 되어 있다. 창의적 사고력은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비판적 사고력은 사태를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은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 활용 능력은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해석, 활용,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역사 영역의 경우, 역사 사실 이해,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정체성과 상호 존중을 중요한 역량으로 삼고 있다. 역사 사실 이해는 과거의 사건, 인물,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중요한 역사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은 역사 자료를 읽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역사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역사 정보를 분석, 토론, 종합,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체성과 상호 존중은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날 요구되는 역사 의식을 함양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능력을 의미한다.

역사 영역의 교육과정은 1) 국가 정체성의 함양 2) 상호 존중에 필요한 역량 강화 3)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 4) 역사 사실의 이해와 분석 능력의 계발 등을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비단 이번 교육과정에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역사교육의 목표로 설정되어 온 것들이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보다 선명히하여 향유의 내용 지식 재편의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상 제시한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과 내용 지식 개정의 방향을 참작해 실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유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행되는 시험이다. 따라서 이 평가의 문항들은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성취 기준에 따라 설계·제작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학생 반응을 분석해 성취 기준 도달 여부와 성취 기준과 학생의 교과 내용 이해 수준 사이의 격차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 글에서는 2017년도에 발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사회과 학업성취

-
- 1) 한춘희, 「핵심역량을 통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교육』 48-4(2009)에 보다 자세한 논의가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람.
 - 2) 정미경·김경자, 「교사의 교육과정 변화 능력(change capacity) 함양을 위한 적응적 전문성(adaptive expertise) 신장 방안」 『교육과학연구』 37-3(2006) 참조.

도 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역사 영역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역사 내용 요소와 체계에 개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6년도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따라서 2016년 사회과 학업성취도 평가는 당해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등을 주요 평가 내용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2016년 및 2017년도 사회과 학업성취도의 대표 문항의 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교과 내용 요소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문항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 내용 구성 사이의 이격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은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성취기준에 따라 문항을 출제하여 교육과정 도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시험이며, 사회과 평가 문항 역시 그러하다. 2017년도 사회과 학업성취도 문항 역시 성취기준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6

6. 밑줄 친 ㉠, ㉡의 공통된 형성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화 속 지형의 이해

#1. 주인공은 스위스에서 산악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도중 알프스 산맥에 있는 뾰족한 봉우리 ㉠마터호른을 창밖으로 보고 감탄한다.

#2. 주인공은 뉴질랜드에서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도중 U자형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만들어진 ㉡피오르 해안 경치를 사진으로 남긴다.




- ① 석회암이 물에 녹아 형성되었다.
- ②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 ③ 빙하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 ④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 ⑤ 하천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1 평가 영역 및 성취기준

내용 영역	지리
행동 영역	기억
성취 기준	지형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을 찾고, 해당 지역의 지형 특징과 그 지형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정답률(%)

전체 정답률	50.62
우수	81.12
보통	55.87
기초	41.19
기초미달	31.11

3 답지 반응 분포(%)

①	②	정답 ③	④	⑤
7.61	19.82	50.62	9.03	12.74

위에 제시한 문항은 2017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중학교 사회 G형 6번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성취기준은 그림의 우측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지형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찾고, 해당 지역의 지형 특징과 그 지형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진술이다. 이 문항의 자료 지문에 제시된 것은 스위스와 뉴질랜드의 피요르 해안 지형과 관련된 자료이며,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것도 피요르 해안의 형성 과정을 학생들이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서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과 성취기준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이 성취기준이 제대로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었는가 알아보고자 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아래 문항은 2017년도 사회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G형 15번 문항이다. 이 문항과 관련된 성취기준은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백제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파악하고, 대외 활동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진술이다. 백제의 건국과 성장에 관한 교과 내용 지식은 주로 주요 국왕이 이룩한 업적이나 활동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학습자들이 내용 지식을 제대로 익히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이 문항에 대한 정답 반응 비율은 20.10%에 지나지 않아 다소 낮은 것이 확인된다.

15

15.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중국 남조와 교류하였다.
- ②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③ 마한의 목지국을 병합하였다.
- ④ 불교를 처음으로 수용하였다.
- ⑤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1 평가영역 및 성취기준

내용 영역	역사
행동 영역	활용
성취 기준	백제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파악하고, 대외 활동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2 정답률(%)

전체 정답률	20.10
우수	42.99
보통	20.53
기초	14.77
기초미달	11.27

3 답지 반응 분포(%)

정답 ①	②	③	④	⑤
20.10	10.10	7.30	36.34	25.74

교육과정에 진술된 이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은 단원 개관 하에 배치되어 있다. 아래에 제시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단원에서는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역사”를 다루게 되어 있다.

여러 나라가 경쟁하는 가운데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역사를 다룬다. 삼국이 정복 전쟁과 체제 정비를 통해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을 부여, 가야의 변화 양상과 비교해 본다. 삼국의 영역 확장의 의미를 삼국과 동아시아의 역학 관계 속에서 살펴본다.

- ① 고구려의 성장과 팽창에 따른 대내외적인 변화를 설명한다.
- ② 백제의 변천 과정과 대외 활동 양상을 이해한다.
- ③ 신라의 영역 확장과 체제 정비 과정을 연관지어 파악한다.
- ④ 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추출하고, 이를 부여, 가야의 경우와 비교한다.
- ⑤ 삼국이 신분제 사회였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 ⑥ 고대 문화의 발전상을 이해하고, 이웃 나라와의 교류 양상을 파악한다.

다시 말해 이 부분 교육과정은 삼국이 연맹 국가적 수준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을 학습하도록 짜여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삼국의 불교 수용 사례를 살펴보고 율령 반포를 통하여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는 과정을 파악한다.”라고 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이 제시되어 있다. 역사 교과적 지식에서 보았을 때 삼국시대에 관한 중요한 내용 요소는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 과정을 이해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과거의 사건, 인물,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중요한 역사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을 역사 영역의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런데도 앞에서 제시한 15번 문항은 백제 25대 무령왕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을 암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 집권 체제로 나아가는 과거 역사의 구조와 변화, 그리고 중요한 역사 개념을 습득했는지 평가하는 데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이 문항은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항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가?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렇지 않다. 중학교 사회과 역사 교과서에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의 역사를 주요 국왕의 치적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농후하며, 평가 문항 출제 시에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보통 교육과정이 교과서, 교사 설명의 형식으로 구현될 때 기존에 내려오던 내용 지식 체계가 새 교육과정의 취지와 방향을 압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사회과 역사 영역의 내용 지식은 그러한 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 구현되는 삼국시대 관련 단원의 교육과정이 기존 교과용 도서에 수록된 내용 체계의 영향으로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일부 반영하지 못한 면모가 있다는 지적은 추가적인 논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이 글의 관심 사항이 아니므로 다루지 않겠지만, “중요한 역사 용어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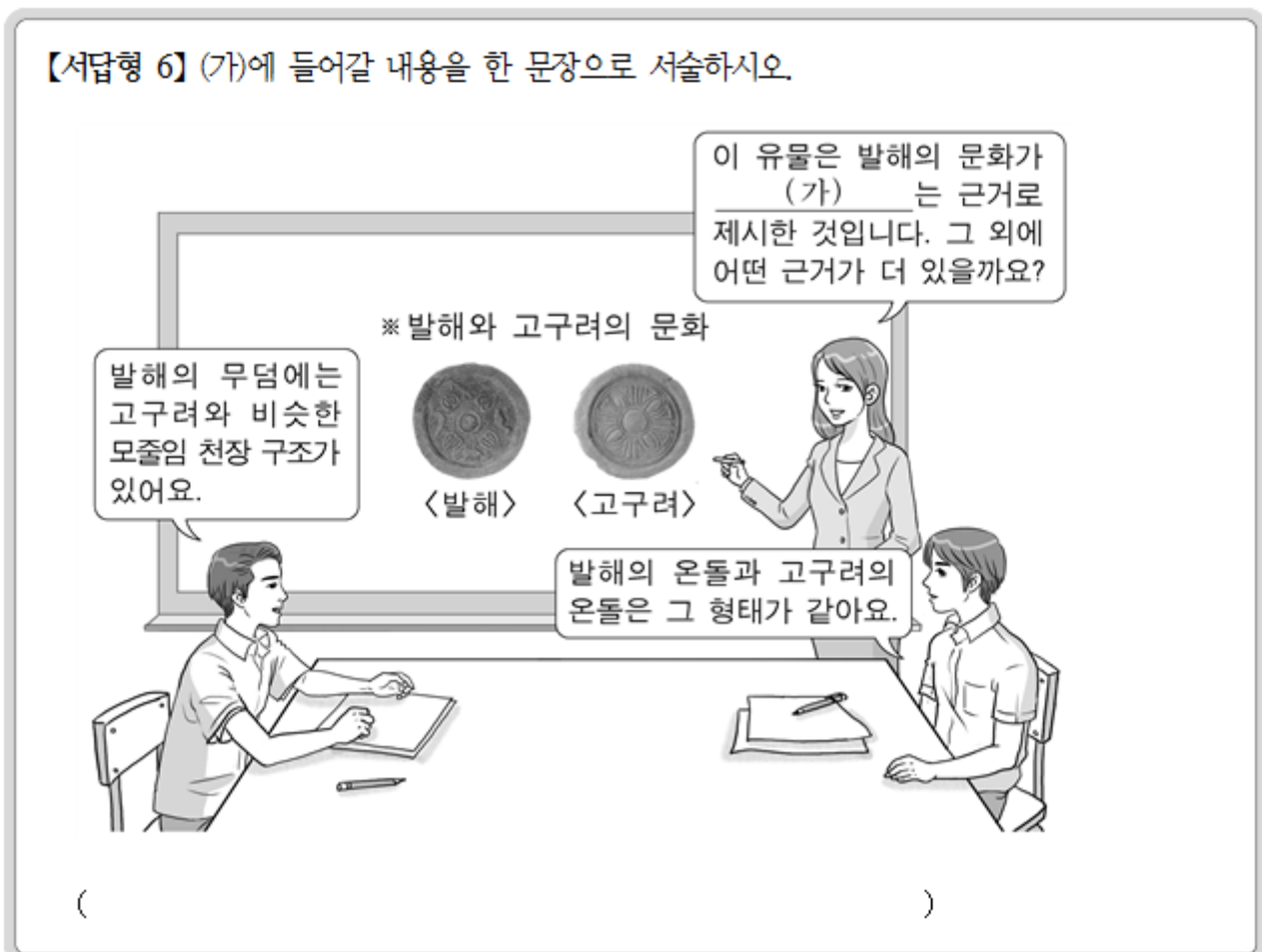
록 교과용 도서의 내용이 발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삼국시대 주요 국왕의 치적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내용 요소는 학습자에게는 복잡하고 난해한 암기 요소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크다. 15번 문항에 대한 정답 반응도가 낮은 것은 그러한 정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단순히 왕의 업적을 나열하는 식으로 서술하기보다 제도 정비를 통한 왕권 강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여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향후 사회과 교과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어질 때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될 것이며,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평가 문항의 적합성 제고 방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내용 요소가 모호하게 진술되어 나타난 문제점

사회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존 교과서 서술 내용의 문제점이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예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에 제시된 문항은 2016년에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중학교 사회과 서답형 6번 문항이다. 이 문항은 중학교 역사(1)의 Ⅲ단원의 발해 문화를 소재로 구성된 것으로서, 비교적 기존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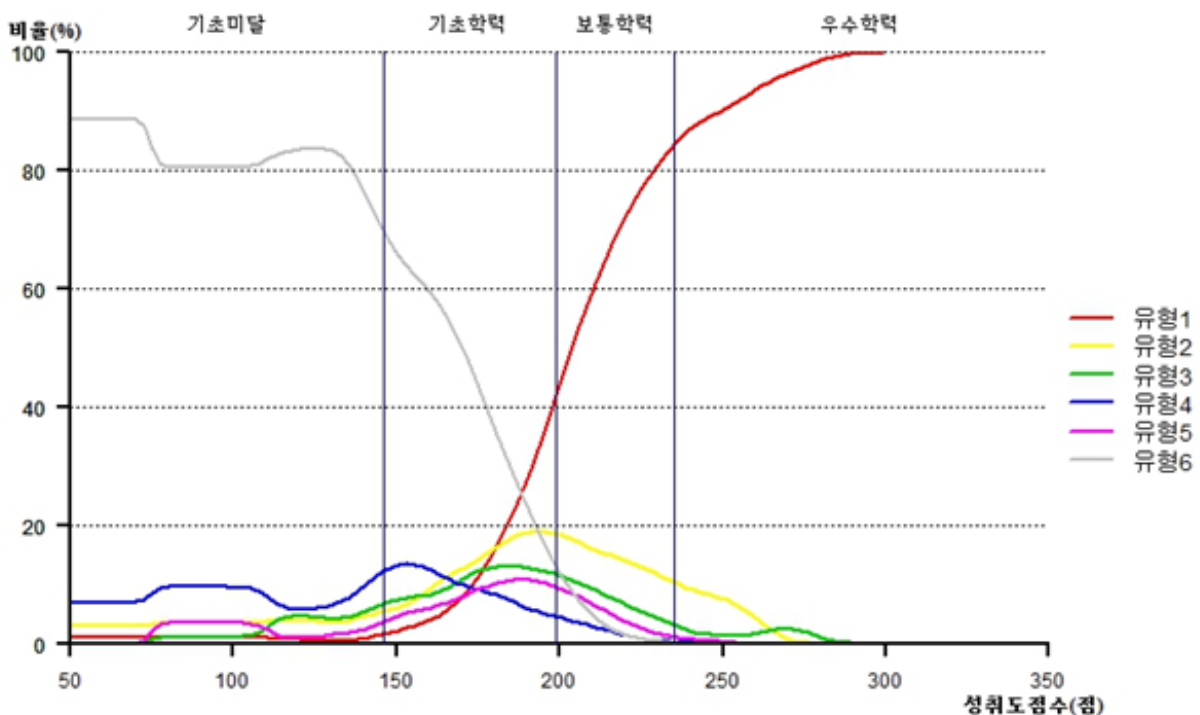


출처 : 장의선 외(2017), p.170

본 문항과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 진술은 “발해의 성립과 문화적 특징을 통해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발해의 발전상을 설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발해와 고구려가 문화적으로 상호 연계성이 높다는 사실은 역사 영역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모줄임 천장 구조, 온돌 사용 문화, 수막새 등의 문화 유산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와 발해 문화는 서로 간에 상당히 유사한 것이 분명하고,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풍부한 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이 문항에 답하는 과정에서 교과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위 개념들을 활용하여 ‘발해의 성립과 문화적 특징을 통해 고구려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교육과정의 진술을 재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성”이라는 표현은 학습자들로서는 상당히 모호하고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관련성’이 포함하는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문장 형식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는 같다”거나 “발해는 고구려의 나라(혹은 종족)이다”라는 식으로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고구려와 발해가 같은 종족이다”는 진술은 오답으로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답변이다. 교육과정에서는 두 나라가 같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문화를 가진 나라’를 학습자들은 대개 ‘같은 나라’ 혹은 ‘같은 종족으로 구성된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명백히 같은 나라도 아니고, 같은 종족으로 사회가 구성된 것도 아니다. 학습자들이 ‘두 나라가 같은 나라 혹은 종족이다’라고 진술한 것은 어쩌면 역사 교육과정 자체가 이 부분을 모호하게 설명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판단된다.



[그림 1] 2016년 중학교 사회과 서답형 6번의 부분 점수 비율 분포

출처: 장의선 외(2017), p.158.

이러한 역사 교육과정 내용 요소의 모호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채점 과정에서 점수 부여 문제 등 다소 간의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본 문항의 서답형 답안 유형을 [그림 1]에서 살펴보면, 올바르게 정답을 제시하여 2점을 획득한 경우도 적지 않지만 (유형 1), 단순히 고구려와 발해가 비슷하였다는 정도로만 기술하거나, 고구려인과 발해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정도로 그 종족적 유사성만 언급하여 1점을 얻은 데에 그친 경우(유형2), 명확하지 못한 문장을 사용하거나 완성된 문장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0점 처리된 경우(유형3), 발해 문화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거나 단순하게 “서로 같다”라고만 적어 고구려와 발해라는 주체가 등장하도록 처리한 경우(유형4), 발해가 고구려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쓰는 등 연대기적으로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비역사적인 사실을 답안으로 제출해 오답 처리된 경우(유형5), 무응답 혹은 무의미한 답안 제시한 경우(유형6)로 나뉜다.

유형1에 해당하는 답안은 전체 7,136건의 응답 중 3,14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유형에 속한 답안은 “발해(혹은 발해 문화)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였다거나 “발전적으로 이어받았다”고 진술한 경우에 속한다. 유형2에 해당하는 답안은 “고구려의 문화와 발해가 연관되어 있다”는 등 다소 모호하게 표현된 답안이다. 유형3과 유형4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사용한 답안이지만 그 역사적 사실이 발해 문화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오답에 해당된다. 유형5 역시 역사적 사실의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한 오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답안들에서 교육과정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문제는 유형2의 경우이다. 보통 학력이나 기초학력 상위 수준의 학생들 중에서 유독 많은 사례가 확인되는 유형2는 고구려와 발해가 “같은 나라”라는 식으로 진술한 것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같다”라는 표현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호하면서도 다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아마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이 부분을 다룰 때 대개 발해와 고구려는 모두 고구려 사람이 만든 나라이며, 사실상 같은 계통의 국가라고 가르쳤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듣는 사람에 따라 “같은 나라”라는 설명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고구려와 발해 유적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특징은 서로 유사한 것이 많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두 나라의 문화에 유사한 요소가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화적 유사성을 종족적 혹은 국가 기원적 동일성과 연결시켜 가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우리 교육과정도 사실상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술되어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음을 반증하는 문제점이다.

이처럼 학업성취도 사회과 평가 중 역사 영역의 문항을 분석할 경우, 우리는 교육과정과 내용 요소 사이에 다소 간 괴리가 있고, 교육과정의 진술이 모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확인된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과정 구성에 환류되어 참고 자료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진지하게 대하게 될 때, 각 단원별 내용 요소를 어떻게 다시

진술할 것인가 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핵심 역량이라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목표를 교과와 어떻게 더 긴밀히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천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장의선·성경희·최병택·동효관·이은주(2017),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사회- (연구자료 ORM 2017-95-2),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하고 추가한 것임.